

나주배 인공수분 6만8천 명 필요한데…외국인 인력 없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인력 30% 줄어…벌써 인건비 1만원 올라



본격적인 배 인공수분 시기가 닥치면서 전국적인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 배 농가의 인력수급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배꽃 인공수분 등에 연인원 6만8000명이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 인력 수급은 안되고 걱정입니다.”

본격적인 배 인공수분 시기가 닥치면서 전국적인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 배 농가의 인력수급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농촌 근로인력의 종주연합을 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에서는 2100여 농가가 지역 특산품인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개화가 시작되는 4월부터 6월까지 필요한 과수 재배 인력은 약 6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4월부터 시작되는 배꽃 인공수분 작업은 꽃이 피어 있는 1주 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수정시기를 놓치면 착과율이 떨어져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공수분은 1년 배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수분작업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를 전담하다시피하면서 지역 배산업에서 종주적 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이 어려지고, 입국은 끊기면서 수급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주지역 외국인 노동자 수자는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주 세지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박모씨는 “배꽃이 피면 꽃 하나하나에 일일이 붓으로 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인공수분 작업은 모두 사람 손에 의존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인력수급난이 예상되면서 나주 지역 배 농가에서는 지난해 인건비에서 1만원 인상된 수준에서 인력 임도선매가 벌써부터 진행 중이다.

나주에서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치마씨는 “배꽃 인공수분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배 농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인력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며 “외국인 여성인력 기준으로 일당이 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나주시가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 나주배원협 농촌고용인력센터, 농촌지도자회 등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농번기 인력 수급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대책은 △방문 비자 외국인(285명)의 체류목적 외 계절 근로 활동 허용 △도시지역 농협과 연계를 통한 인력 모집 △배과수농가 작업 일정 조정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용 △시 신하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새로일자리센터 농작업 분야 인력 확보 △농기계임대

‘온라인 개학·겨울 수능’
고3·학부모 “울고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겨울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이 현실화하면서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지만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음 날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진행한다. 이후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

예전처럼 등교해 수업받는 정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동구에서 사는 A씨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혼자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동이 엄마 B씨도 “온라인 개학할 경우 아이 3명이 동시에 수업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수능 일정도 2주일 연기됐고, 수능 6·9월 모의평가도 2주씩 순연된다. 1993년 처음 실시된 이후 수능이 12월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31일 오전부터 알려지면서 SNS는 들끓었다.

SNS 트위터에는 “온라인 개학? 올해 고3하기 힘들다” “울고 싶다” “우리 집 고3 어떻게 합니까” “고3인 저는 멘탈이 걱정됩니다” 등의 게시글이 눈에 띄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예년과 비

교해 고3의 수능 대비 여건이 열악하다면서 “고3 담임교사들이 올해는 ‘재수생의 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온 재수생이나 집중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강남 학생들이 더 유리하다는 게 학생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을 “시기가 늦춰진 만큼 고3 학생들은 수시로 같지 정시로 같지 유불리를 빠르게 판단해 일찍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주 연장돼 12월에 치러지는 수능

에 대해선 “날씨가 가장 걱정이다. 강추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단신 ●

텔레그램 n번방 제보자 극단선택 시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의 실태를 추적해 언론과 수사기관에 알려온 제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30분쯤 텔레그램 성착취방 관련 제보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소재지 추적을 통해 그가 머무는 곳을 찾았다. A씨는 발열증상을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전날(30일) 밤 10시26분쯤 언론과 제보를 공유하는 채팅방에 최근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과 인터뷰 중 자신의 인격이 모욕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문제 해결보다 자극적인 보도를 만들어내려고 저를 악용하려 한다”면서 “좋은 취지로 반성하는 저의 태도를 가지고 ‘본인이 뭐라도 된 것 같으나’ 너 여자친구는 사귀어봤느냐 ‘너 이러는 게 반성하는 거 같나’라고 비하해서 이제 (n번방 관련) 제보 안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광주 경찰관이 성매매사이트 회원가입 의혹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지수대는 경찰관 3명이 성매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관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별立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사이트 회원명단 대조작업을 진행하고 단속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사이트 회원 가입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단속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학 도서관서 1000만원 상당 물품 훔친 3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쯤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서 노트북과 책, 식료품을 훔친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훔친 노트북을 뒤팔아 생활비에 사용하고, 즉석밥 등 식료품은 자신이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일정한 거주지 없이 고시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 공탁금 10억 가로챈 변호사 구속 영장

의뢰인을 속여 법원에 내야 할 공탁금 수십억원을 챙긴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3명이 낸 공탁금 10억원을 기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사에게 말을 질해줄 것이다”거나 “공탁금을 내야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등 말로 꾀어 의뢰인들로부터 공탁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믿고 의심의 여지 없이 공탁금을 A씨에게 맡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탁금을 내지 못해 의뢰인들은 또 다른 피해를 입어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여론에 궁지 몰린 ‘박사방’ 유료회원 자수 이어질까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유료회원 중 일부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1일 “박사방 유료회원 중 3명이 자수했다”고 알리면서 박사

방 관람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박사방 관련 1만5000건의 나이네임을 토대로 성착취물을 공유한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거한 (박사방 운영진) 14명이 주범격이라면 앞으로 수사는 유료회원으로 (대상을 넓혀) 수사할

것”이라며 “전자지갑이나 가상화폐 자료를 통해 유료회원을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암호수색한 자료를 포함해 나머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금주 중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n번방과 박사방과 관련해 겹치는 활동을 한 공범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